

이며 肉髻가 높직하고 顔面은 重厚端雅하나 比較的 넓직한 便이다. 硬直한 頸아래에 一段이 隆起된 部分이 있어 三道를 擬態하였다. 그로부터 가슴과 어깨의 線이 始作되는데 胸位는 大端히 發達된 當當한 것으로 自身이 滿滿한 體軀이다.

法衣는 左肩偏袒인데 上衣의 右端이 한결 접혀져 있다.

印相은 一般的이 아닌 것으로 左手는 무릎위에 上掌하였고 (像中心線에서 훨씬 앞으로 나가 놓였다) 右手는 胸臆에 놓였는데 內掌하고 손끝을 위로 치켰다. 人指의 曲線이 興味있고 中間二指를捻하고 새끼손가락을 폈다. 이러한 印相은 居昌地方의 石造佛像 등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大端히 興味있다.

光背는 學身光背로 頭光과 身光이 火焰內에 새겨져 있고 그 外廓에 連珠文을 둘렀다. 頭光은 連珠文帶內에 二條太輪이 둘러져 있고 그 內에 薄浮彫한 單葉蓮瓣이 十一瓣으로 되어 있다. 外廓間地의 火焰文은 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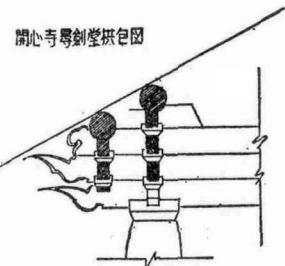
膝下의 臺座는 岩盤을 그대로 利用한 素朴한 것이다. 狀態는 매우 좋은 편이다. 新羅統一期作品으로 推定된다.

資料

瑞山 開心寺 尋劍堂 上樑文

林 泉

白紙墨書(長一m四cm 幅二七cm 字徑二cm)로서 四十一行인바 처음의 四行을 除하고는 關係人名의 列記이다. 一九六二年 九月二十日頃 開心寺 大雄殿 重修工事に 따라서 그 西側인 尋劍堂修理中 棟梁장터 間에서 發見되었다. 尋劍堂은 正面三間 側面二間으로서 二翼工의 外目柱三包樣式이며 背屋(맞배)인데 그 年代는 李朝初期(이웃 大雄殿과 거의 同代)



로 推定되었다. 이 같은 講堂樣式의 遺構는 麗代以來의 手法을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외의 安東 鳳停寺 講堂 또는 榮州 浮石寺 擬香閣(爐殿) 등과 比較考 察되어야 할 것이다.

自成化十三年丁酉三重創 又天啓七年丁卯十月四重 創順治四年丁亥五重 創雍正九年辛亥四月十七日午時上樑六重創

大夫比丘 覺明 通政大夫比丘 清演 金從鶴 金芑波只 尹宰億 申光雷 申寬興 朴尙明 通政大夫比丘 玄益 嘉善大夫比丘 尙玄 通政大夫比丘 靈彥 老德通政大夫釋誥 比丘學禪 比丘廣日 比丘道俊 三綱秩 和尙嘉善大夫處明 三寶云俊 持事云擇 書記戒均 持殿道行 緣化秩 木手 朴時同 比丘雪俊 金大奉 別座比丘聖仁 比丘九還 供義主 漢益 智日 木軍 李世輝 李順必 化主 道禪 居士 惠日 比丘仁贊 (幅一m四·五cm, 高二七cm, 四一行字大二cm)

雙峰寺 大雄殿 上樑文(三層殿)

申 榮 勳

長一·六七m
幅二二·二cm 壯紙、無野線、墨楷書
全一〇二行

三層殿記 如建不知幾千年 康熙貳拾玖年庚午三日二重創召、焉 雍正貳年三月日三重創記 施主秩(上行)
大施主 大禪師下荆 施主 金者斤老味 施主 嘉善廣海 施主 前判事靈照 施主 通政釋還 施主 通政大安 施主 通政登階竺念 施主 慈解 施主 處和 施主 熙性 施主 嘉善竺璉 施主 嘉善明現 施主 敏玉 施主 通政登階敏熏 施